

현장과 시각

내 인생의 공연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올 8월과 9월엔 좋은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아 꽤 즐거웠다. 그 중심에는 취재 때문에 여러차례 관람한 '캣츠'가 있었다. 8월엔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조승우의 '맨 오브 라만차'도 관람했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서 만난 안은미컴퍼니의 'Let me change your name'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상반신을 노출한 여자 무용수들의 자유로운 동작과 독특한 안무, 절묘하게 매치된 음악 등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파격'이었다.

안씨가 한 인터뷰에서 "나의 작품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충격적일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광주 관객들에게, 아주 '뒤늦게' 찾아온 '충격'인 셈이었다.

예술의거리 공동예술극장에서 본 '어·우·회'의 '희한한 한쌍'은 작품도 재미있었지만 류지영, 정경아, 고난영 등 '광주 여배우들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반가웠다.

하나의 작품이 주는 감동의 무게는 상상을 넘어 서기도 한다. '어느 순간' 접했던 '어떤 작품' 덕에 삶은 더욱 풍요로워 지기도 한다. 취재 중 '캣츠'를 140번 넘게 본 여성을 만났었다. 지난 2003년에만 108편을 관람했던 그녀는 2003년 12월 9일 '캣츠'를 처음 접했을 때 감동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캣츠는 내 인생이고, 짧은 날의 내 열정'이라고 말했다.

여고 1년생의 대답도 기억에 남는다. 중학교 음악시간에 DVD를 보고 꼭 '진짜' 공연을 보고 싶었다는 그녀는 '캣츠' 덕분에 정말 뮤지컬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예회관에 붙여진 공연 포스터를 보면서 앞으로 문예회관을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캣츠'가 그녀를 낚은 공연의 세계로 인도한 셈이다.

'희한한 한쌍' 공연장에서선 여대생들이 "연극은 처음인데 너무 재미있다"며 친구들과 연극을 자주 보자고 약속하는 걸 보고 괜히 흐뭇해졌다. 이제 그녀들도 '공연의 맛'을 알게 된 듯해서다.

가짜 공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역시 중학교 때 전남대강당에서 관람했던 뮤지컬 '지저스 크리스마스 스페이스' 덕분인 것 같다. 윤복희 등이 출연했던 '지저스 크리스마스 스페이스'는 단체 영화관람에 나 입숙해 있던 여중생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 기분을 잊지 못해 고등학교·대학교 때 지금은 없어진 드라마스튜디오, 금호문화회관에서 '빨간 피터의 고백' 등을 보며 가슴 설레었다.

가을은 공연의 계절이다. 외국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오페라 '내부인'과 '황진이'가 기다리고 있고 평화연극제도 대기중이다. 바쁘고 여유 없는 생활이지만, 올 가을이 가기 전 한번쯤 공연장을 찾아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mekim@kwangju.co.kr



손학규 후보 특보단 기자회견. 손학규 후보의 국회의원 특보단인 송영길·김동철·전병현·정장식·조정식 의원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교수 정동영 후보 지지선언.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 430명을 대표한 20명의 교수들이 19일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정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호남에 올인 승부수... "밀리면 끝장"

■신당 광주·전남 경선 9일 앞... 후보들 광주 빅매치 배수진 정동영 초반 상승세 유지...손학규·이해찬은 반전 별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가 될 광주·전남 경선(29일)을 10일 앞둔 19일 세 명의 후보들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진단 아래 광주에 배수진을 친 채 추석 직후 빅매치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특히 손학규, 이해찬 후보측은 호남에서 반전의 물꼬를 찾기 위해 캠프조직을 풀가동했다. 지역 교수들의 지지선언과 지방의원들의 신당 합류 등 물량 경쟁도 잇따랐다.

정동영 '사기충천' 호남에 진지구축 =초반 4연전 승리 이후 여론지지가 풀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정동영 후보는 19일 광주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핵심 참모로 뛰는 현역의원 14명과 함께 광주 5·18기념문화관에 '이동선대본부'를 꾸리고 전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호남대 이기우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 430명을 대표

해 20명의 교수들이 "민주적 정당성과 평화 번영의 비전을 지닌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 후보는 "지지 선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은 제3기 민주정부를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일부 조건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 지지율이 10%를 돌파하면서 경쟁후보인 손학규 후보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자 캠프는 '사기충천'한 분위기였다.

정 후보는 추석연휴 기간 호남에 고지시했다. 주말인 22일 호남을 다시 찾아 27일까지 5박6일간 '상주'하며 시·군을 한 차례 순회한다는 구상이다.

손학규 '지지를 추락'비상 투쟁선언 =손학규 후보 캠프는 19일 "경선이 조직·동원선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구태정치와 투쟁을 선언하면서 초반 경선 4연전 패배를 딛고 일어설 대반전의 기회를 모색했다.

선대본 부본부장인 김부겸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동원과 줄세우기가 승부를 가르고 있다"며 경선이 조직·동원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손 후보의 국회의원 특보단인 송영길·김동철·전병현·정장식·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

서 회견을 갖고 "지금 신당의 경선은 낡은 구태정치를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권 창출을 기대할 수 없고 신당이 우리당의 전철을 밟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폭발적인 참여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로 세워지는 감동적인 경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해찬 친노 세력집 '영남서 역전' =이해찬 후보 진영은 친노(親盧) 단일화의 효과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에서 치러질 '슈퍼 4연전'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강운태 전 내부부장관이 '이해찬 지지'를 선언한 데 대해 전화로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캠프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은 "20일 광주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 기간 광주와 부산, 충남을 오가는 '대역전 투어'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부산·경남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세규합에 나설 예정이다. 21일에는 김두관 전 광자부장관과 신기남 의원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날 만남에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측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 후보 다음으로 전국 선거를 많이 치러왔고 특히 영남에 조직이 탄탄하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오늘 인천서 첫 대선후보 경선

민주당이 20일 인천을 시작으로 내달 16일까지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대선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민주당 경선 참여규모는 당원 40만명, 국민선거인단 20만명 등 모두 60만명이다. 순회 경선은 ▲20일 인천 ▲29일 전북 ▲30일 강원·대구·경북 ▲10월3일 제주 ▲6일 부산·울산·경남 ▲7일 서울 ▲13일 경기·대전·충남·충북 ▲14일 광주·전남 ▲16일 대선후보자 선출대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실시되는 인천 경선은 향후 경선판의 풍향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은 '인천 개막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 경선 참가인원은 2만1천743명으로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작지만 첫 경선인데다 수도권에 표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조순형 후보가 여론조사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인제 김민석 후보가 각각 조직력과 패기를 앞세워 조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국환 장 상 후보도 선거인단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인천 경선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인천 경선 이후에는 전남 12만, 전북 11만, 광주 11만 등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 경선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남도의회 김재무 부의장 신당행

목포지역 인사 2,500여명도

전남도의회 김재무(광양2) 부의장이 19일 민주당을 탈당, 대통합민주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세력이 대통합해 단일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고민 끝에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

다. 이로써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24명, 대통합민주신당 24명으로 평행한 양당 체제 아래 무소속 2명, 민주노동당 1명 등으로 재편됐다.

한편 이날 강찬배·김대중씨 등 민주당 탈당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 전 열린우리당 당원 등 2천500여명도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ana Shing' (산아싱) featuring various agricultural machinery like tractors and harvesters. Text includes '농기구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and contact info (062)363-4800.

Advertisement for 'Roddam' (로담) featuring a gallery and new products. Text includes '로담갤러리 신제품출시' and '특별기획상품행사' with a 30%~50% discount offer.